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내러티브 설교 3강: 주해 과정 개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분석 [줄거리]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 해석 과정 개요,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또는 줄거리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해석 과정, 즉 구약 성경 이야기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고, 그 과정의 첫 단계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산맥 국립공원에 있는 롱스 피크 정상은 해발 14,259피트(약 4,320미터)에 달하며, 정상까지 오르려면 등산로 입구에서 8마일(약 13킬로미터)을 걸어야 하고, 고도차는 거의 6,000피트(약 1,800미터)에 이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 와야 하죠. 정상까지 오르는 여정과 내려오는 여정 모두 나름의 즐거움과 위험이 따르는데, 저는 롱스 피크 등반을 세 번 시도해서 두 번 성공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설교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통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윤리적 핵심은 무엇일까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런 다음 다시 그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의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본문의 의미를 풀어내고 청중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설교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두 주 동안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해석의 정점에 도달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고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잠언이나 바울의 로마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춰 접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아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선택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어떤 책에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주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전반부,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들이 그렇죠. 하지만 율법서나 답론이 상당 부분 포함된 책들조차도, 예를 들어 출애굽기 전반부는 물론이고, 레위기를 생각하면 율법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레위기에도 이야기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에도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신탁을 떠올립니다. 그것들은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 안에 신탁도 있지만, 대체로 이야기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같은 예언서에도 이야기 형식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야기 형식이고, 다니엘서와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해본 적이 없거나 구약의 이야기 문학을 접해본 적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어 읽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메모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서사'와 '이야기'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적 기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혼동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서사입니다.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읽어보시고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이야기 본문을 설교해 본 적이 없다면, 비록 유명한 이야기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세요.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들어봤잖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도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배운 방식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할 수도 있겠네요. 데보라와 JL, 사사기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아니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이야기는 어떨까요? 청중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하나 골라보세요. 이야기 형식의 책을 바탕으로 설교 시리즈를 기획하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도전해 볼 만한 다음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나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성경 전체 줄거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나 다윗의 광야 시절(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처럼 짧은 이야기 단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기는 성경 이야기에 입문하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나 다윗, 심지어 루과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저자는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들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인 4장부터 7장까지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본문 선택의 핵심은 성경 전체의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구절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신약 서신서를 설교하는 데 익숙하다면 한 단락 정도는 쉽게 설교할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구약 서신을 접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본문이죠.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단원으로 묶어서 설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의 배경만 알게 되고,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나버리니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장 전체를 설교하고, 때로는 그 이상을 설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11장을 설교할 때마다 12장도 함께 설교합니다.

물론 나눠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이야기는 11장과 12장에 담겨 있어요. 다윗이 밋세바와 저지른 죄와 그 결과가 나오는 내용이죠.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두 장을 함께 읽어야 해요.

사사기 17장과 1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 하나인데, 17장 1절부터 18장 끝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두 장 모두 설교해야 합니다. 물론 나누어서 설교할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전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이야기, 즉 전체 이야기에서 사고의 단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한계, 즉 시작과 끝은 주로 줄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분석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있겠죠.

인물 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죠 .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온다면,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다른 문학적 단서들이 함께 나타날 겁니다.

창세기 18장 33절은 장소의 변화를 통해 이야기의 결말을 알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시자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등장인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15장을 떠올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이야기가 끝난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죠. 때로는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시점 이후에 등장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요. 그런 것들을 통해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러한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고, 그 후 화자는 아브라함에 관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지만, 핵심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려는 해석 전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 진리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찾아야 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 또는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의 저자는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의미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구약 이야기 설교의 기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조금 언급했지만, 의미와 저자의 의도라는 영역에는 많은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러티브를 연구할 때는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이고, 내러티브는 이야기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구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이야기 의 전개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죠 . 예를 들어 신약성서 서신서와는 매우 다를 수 있는데, 신약성서 서신서에는 좀 더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는, 변호사의 변론서라고 정확히 부를 수는 없겠지만, 내용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이 더 기술적으로 체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은 저 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약 서신서를 설교할 때면, 아니, 항상 기계적으로 구절들을 배열해 봅니다. 절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 형식의 설교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 책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중 하나를 도식화한 걸 본 적이 있는데, 특히 아브라함이 세겔으로 걸어가는 장면을 도식화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뭘 이해하지 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세겔으로 걸어갔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문학 작품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학자인 존 세일해머는 텍스트란 저자의 의도를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스트는 그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고안된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 작가들이 작업했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예언적인 메시지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며, 역사적 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학을, 또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통해 신학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을 왜곡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전하라고 인도하시는 요점을 뒷받침하는 이야기, 기록, 세부 사항만을 선택할 뿐입니다.

네,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면 우리의 성경 해석 과정이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야기나 서사의 중심 사상, 즉 큰 주제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에는 하나 이상의 주제가 담겨 있지만, 중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역사 속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점은 우리가

요점 정리를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몬태나의 카우보이든 시카고 북부 교외의 화학자들 간에, 그들은 그저 요점만 적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 이야기를 훑어보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다섯 가지 방법이나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한 네 가지 단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로 돌아가서, 솔직히 저는 그런 해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그런 의도로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에 목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잠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여섯 가지, 심지어 일곱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목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서사 문학은 주로 목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청취자들은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라고 물을 때 실제로 그 특징을 알아챱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US News and World Report는 뉴스 잡지였는데,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는 게 흥미롭네요.

어쨌든, 그들은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처음 들려준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내용의 기사를 썼어요. 미국에서 자랐고 디즈니에 익숙하다면 신데렐라 영화나 책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US News and World Report의 이 기사에서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려준 어머니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대략 이랬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엄마인 내가 사라지고 아빠가 다른 여자로 대체되는 거야." 저는 그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세속적인 작가가 그 이야기의 교훈이라고 말한 거죠. 서양, 특히 서양 문명권, 그리고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있잖아요?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죠.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아홉 살짜리 아이가 루돌프를 보고 나서 부모님이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가 뭐였어?"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점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어"라고 대답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 이야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달되는 메시지가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연구하면서 찾아볼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 해석 과정을 진행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숙지 해야 합니다 . 이제 그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두문자어를 사용하는 건데, 영어로는 효과적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 영상을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보신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CTS라는 단어는 영어 알파벳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극의 막들을 생각해 보세요. 1막, 2막, 3막처럼요. 그리고 각 알파벳은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A는 액션이나 줄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 행동(act)' 이라는 단어가 A로 시작한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이 분야를 개척한 이스라엘 학자들 중 일부는 "이 이야기들은 줄거리 중심의 이야기다. 따라서 A는 행동이나 줄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C는 등장인물(Character)을 의미합니다. T는 , 아주 전문적인 용어인데, 말하는 것(Talking)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T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성경 이야기에서 대화, 즉 연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배경을 나타내는데, 제가 문학적 배경이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 문화적 배경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일종의 범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기계적인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극의 전개, 등장인물, 대화, 배경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읽다 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독서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포츠 비유를 하나 더 들어도 괜찮으시겠죠? 저는 어릴 적부터 미국 스포츠인 야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야구에서는 누군가가 공을 던지면, 그걸 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야구를 처음 배울 때는 배팅 티, 그러니까 기둥 같은 걸 이용해서 공을 치는 법을 배우잖아요. 배팅 티는 기둥처럼 생긴 건데, 그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야구 초급반을 가르쳤는데, 그걸 티볼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이 티볼을 하면서 공을 쳤죠. 그런데 그때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몇 년 전, 야구계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었던 앨버트 푸홀스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그래서 카디널스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을 때 알버트 푸홀스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배팅 티를 사용해서 타격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스윙 속도를 늦추고 있었어요. 스윙의 일부분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배팅 티를 돌면서 손을 돌리는 동작 같은 걸 연습했어요. 실제로 멈춰서 부분부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엉덩이를 흔들었는데, 타격의 힘은 배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배트를 밀어내는 데서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동작을 새로운 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흥미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시속 95마일(약 153km)의 강속구를 상대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니깐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세분화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조합하여 거의 직관적으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극의 막, 이야기의 막, 즉 A, C, T, S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전문 문학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읽는 주석서와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걸 사용하는 걸 듣게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혼내줄 겁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물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설교할 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 점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지한 생각과 심도 있는 성경 해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힘 있는 설교를 하려면 본문 연구에 기도를 깊이 담아 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은 신약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레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처음 사용했던 주석서 중 하나가 바로 그의 마가복음 주석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 주석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청교도들의 관습대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청중들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본문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꼼꼼히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절대로, 절대로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A는 액션을 의미하며, 이번 수업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A는 액션을 뜻합니다. 액션이라고 하면 줄거리를 말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시작할 때는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그 후에 주석서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주석서를 먼저 보지 마세요. 성경 본문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면 주석서를 참고해서 좋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석서는 여러분의 토론 상대가 되어줄 것이고, 주석서를 전부 읽지 않아도 궁금한 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주석서를 참고해서 토론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 먼저 직접 작품을 감상하고 나서 해설을 참고하세요. 그럼 실제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작품을 볼 때는 줄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줄거리란 작가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짜임새를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마다 줄거리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은 네 가지 주요 단계 또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은 문학 용어입니다. 현대 문학 수업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이야기의 본질과도 잘 어울립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문화권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단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해 설교나 성경 해설과는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해설을 하고, 위기를 맞이하고, 마지막으로 해결에 도달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이야기도 없죠. 그리고 그 위기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합니다.

결말이 기쁘든 슬프든, 어쨌든 이야기에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끝, 즉 결말이나 해결 이후에 또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학자들은 이를 데누망(denouement)이라고 부릅니다.

써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물론 농담이에요. 하지만 전 결말보다는 결론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요.

하지만 '결말'이라는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결말을 뜻하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결말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결말을 갖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별개의 고찰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해석가들은 발단이 끝나는 지점과 위기가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 고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러한 단계들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줄거리 요소 간의 변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가 운전을 배우던 시절에는 요즘에는 잘 안 타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했었어요.

요즘 차들은 대부분 자동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변속기에서는 1단에서 2단, 3단으로 변속됐는지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액셀을 세게 밟으면 어렵듯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소리로도 알 수 있고, 몸으로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할 때 직접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했던 거죠.

3단, 4단, 5단 변속기를 운전하느냐에 따라 2단에서 3단으로, 그리고 결국 3단에서 4단으로 변속하겠죠. 변속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 수 있었던 건 직접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단에서 위기를 거쳐 해결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변속기 같아요. 때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죠. "아, 위기가 5절에서 끝났나, 아니면 11절에서 끝났나?" 하고 30분 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기본적인 흐름만 찾으면 되는 거죠.

때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위기 상황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좋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는 설교를 설명할 때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서론은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정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배경 정보라고 부르겠지만, 이는 문학 전문 용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 38장 1-11절을 설교하기로 했다면 꽤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1-11절은 본문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것만 강조한다면, 글썄요,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뭔가를 억지로 해석해내야 할 텐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서론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상황을 설명해 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해설입니다. 어떤 이들은 1절부터 6절까지도 해설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는 위기 상황으로 넘어갈 때 도움이 될 만한 세부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단 한 구절일 수도 있죠.

때로는 조금 더 길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를 정해진 틀이나 범주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것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복잡한 상황, 갈등 또는 긴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든 간에, 어떤 종류의 위기가 존재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위기만큼 심각해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파악 해야 합니다 .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일련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이야기가 똑같은 틀에 박힌 패턴을 따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종류의 위기는 반드시 닥쳐올 겁니다.

창세기 38장을 읽기 시작하면, 형들과 헤어져 내려온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형들과 떨어져 나갑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말 엉망이 됐어요. 완전 난장판이 됐죠. 그때부터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 중 몇 명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셋째 아들을 첫째 아들과 결혼한 타마르에게 시집보내려던 찰나에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 후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타마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타마르가 남편이 셋째 아들을 낳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절망에 빠졌는데, 그녀의 문화에서는 가문의 상속권을 얻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서양 문화권 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 동양 문화권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는 않을 겁니다 .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성욕 조절 능력 부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사찰 창녀로 변장하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하게 된다. 그것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한다.

그러자 유다가 말했습니다. " 그는 그녀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그녀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워 버리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어떤 이야기든 간에 위기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파악하려는 것은 바로 그 위기가 무엇인지, 혹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련의 위기들이 벌어지는지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위기에서 해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해결 과정에서는 줄거리가 절정에서 빠르게 벗어나 원래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창세기 38장에서 화형당하기 위해 끌려나갈 때, 그녀는 유다가 남겨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같은 것을 꺼냅니다. 유다는 빛을 갠아야 했습니다 . 양 떼에서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그녀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 내 인장과 지팡이를 가져가세요."라고 말했죠. 인장은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어요.

그건 표면에 표시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걸 찰흙에 굴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표면에 개인 식별 정보가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띠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표식 이 새겨진 지팡이를 건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는 "여기, 내 운전면허증이랑 주요 신용카드를 담보로 가져가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음행과 유다의 가족에 대한 불충실을 저질렀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하기 위해 끌려 나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결말이 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죠.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긴장감은 사라집니다. 유다가 그녀가 자신보다 더 의롭다고 선언하면서 이야기는 해결됩니다.

그녀가 의로웠다는 것은 나병환자와의 결혼을 통해 후계자를 얻으려 했던 그녀의 행동이 유다가 자신의 문화적 기준에 어긋났던 것보다 더 의로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문화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야기의 결말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말이 행복한 결말일 수도 있고 슬픈 결말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결말을 해피엔딩이라고 부르지만, 문학 학자들은 이를 희극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티븐 콜버트식 유머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이 레노나 조니 카슨식 코미디와는 다릅니다. 그런 종류의 코미디가 아니라는 거죠.

희극의 구조는 흔히 U자형 플롯이라고 불리는데, 변영에서 시작하여 비극으로 치닫다가 다시 변영으로 돌아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자형 플롯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희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교할 때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이 이야기는 코미디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 재밌는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유머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코미디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 중 일부에는 유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코미디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미디도 이야기의 한 종류이긴 합니다. 고전적인 예시들을 떠올려 보세요.

는 희극입니다. 룯기 도 희극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희극인 이유는 단순히 웃겨서가 아니라, 이야기가 변영 속에서 시작되지만 골리앗이 나타나 상황이 악화되고, 다윗이 그 거인을 쓰러뜨리면서 다시 변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죠. 저건 슬픈 결말이네요.

그리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사사기 전체가 하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전부가 비극적이예요. 물론 밝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비극적이죠.

하지만 삼손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형적인 비극이죠. 이야기는 결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비극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은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야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위기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해결 과정도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은 때때로 결론, 즉 프랑스어로 '데누망(dénouement)'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맺는데, 이는 이야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데누망은 이야기의 결말이나 주인공의 운명을 이야기의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 보면, 27절에서 30절까지는 별개의 결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족보가 나오고, 그 후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손들은 매우 중요한데, 그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그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사사기 7장, 17장, 18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이미 마무리되고 긴장도 해소되었지만, 단 지파가 새로운 영토를 차지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을 계속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내용은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왕비가 부림절을 제정했고, 모르드개가 페르시아 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야기가 해결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네 가지는 발단, 위기, 그리고 해결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들은 마지막에 별도의 결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의 줄거리에 들어맞는 다른 세부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원형 또는 플롯 모티프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는 이야기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들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미 희극과 비극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것들이 바로 줄거리의 모티프 또는 설계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때로는 영웅 이야기, 즉 영웅 서사가 등장하는데, 그 안에서 영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 해야 합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10년 동안 방황하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등장인물들이 위험을 만나고 성장하는 여정을 겪기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올려 봅시다.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의 여정은 험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유혹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악한 유혹자의 희생양이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브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삼손과 들릴라도 있고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도단에서 에스더와 엘리사를 떠올려 보세요.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 책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석을 읽다 보면, 설교하려는 이 이야기가 영웅 서사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영웅 서사도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물가에서 일어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죠.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지배하는 주제나 모티프도, 창세기 전체에 걸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선이 좁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땅에 축복을 내리실 그 선은 보통 형을 통해 이어지지만, 때로는 동생을 통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반복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급 작문 수업을 들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블레어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셨지만, 항상 제 과제물에 빨간 잉크로 무시무시한 'R' 과 'R' 이라는 글자를 써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잘했으니 쉬고 긴장을 풀라' 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반복적이고 불필요하다는 뜻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그게 실제로 반복 적이고 불필요하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됐죠. 두 단어를 다 써야 하는데 ,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요컨대, 그녀는 한 번에 제대로 말하는 걸 선호했고, 만약 다시 말해야 한다면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낫다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적어도 제 영어 선생님들은, 반복은 최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는 반복이 미덕입니다. 반복은 오늘날 우리가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굵게 쓰거나 이탤릭체로 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작가들의 기법입니다.

줄거리 분석은 반복에 주목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그것은 종종, 때로는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기나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르비보셋 이야기에서도 히브리어 단어 " 헤세드", 즉 충성스러운 사랑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때로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종종 그렇고, 핵심 단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요.

그는 계속해서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죠. 줄거리나 사건을 볼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시간과 속도입니다.

문학 학자들은 서술 시간, 즉 실제 시간과 서술 시간, 즉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술 시간과 서술 시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항상 헛갈리곤 하는데,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 자, 그렇다면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창세기 38 장의 흥미로운 점은 처음 11절이 거의 20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는 몇 달 에 걸쳐 진행되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는 모든 일이 한 시간 정도 안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백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정말 흥미로울 때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작은 지면을 할애하는 반면, 훨씬 짧은 기간에 대해서는 큰 지면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저자가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때로는 그런 식으로 서술 부분이 어디서 끝나고 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짧은 공간에 여러 해에 걸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약이 끝나면, 특정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 좋아 ,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의 핵심에 들어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아주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점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요소 중 하나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3인칭 시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느헤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또한 "보라"와 같이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인물의 말에 나올 때, 우리는 등장인물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어쩌면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아이러니일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란 말과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학자들은 언어적 아이러니와 극적 아이러니를 구분하는데, 언어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이 겉으로는 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정반대의 의도를 가질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행렬에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가엘이 한 말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다윗이 자기 집안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가엘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자기 종들,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마치 천박한 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몸을 가리지 않고 벗듯이 자기 몸을 드러내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 미가엘이 "와, 오늘 정말 뻔뻔스럽게 몸을 가리셨군요."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미가엘은 비꼬는 투로, 아이러니하게 말한 겁니다.

그녀는 "그래, 오늘 자네는 마치 천박한 사람이 옷을 벗 듯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척했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다윗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극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실제로 알고 있는 진실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사사기 4장 20절에 나오는 야엘 이야기를 보면, 적군의 장군이 그녀의 천막에 피신하는데,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 같은 가정 도구 몇 가지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중이었고, 중요한 것은 전쟁 무기가 아닌 가정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밀대와 진공청소기로 적군 장군을 죽이려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는 그녀의 텐트로 피신하여 말합니다. "텐트 문간에 서 있어. 누군가 와서 '안에 누구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대답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처리할 때쯤이면, 그는 죽게 될 것이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문학적 특징들도 몇 가지 더 있지만, 그것들은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사건과 줄거리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나요? 그리고 줄거리 속에 반복되는 부분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나요?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나요?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장면들이 있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좋은 출발점이며, 우리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이며,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해석 과정, 즉 행적 분석 또는 줄거리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